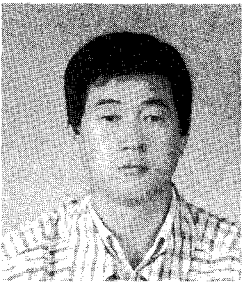


농가 정보 일원화로 위기 벗어나자



송복근
(무궁화농장 대표)

지난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은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과 미국, 유럽까지 동시 발생하여 양계업의 존립 위기까지 거론될 국면이었다.

특히, 충남 천안과 경남 양산 지역의 산란계 농가들은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으며, 우리 동두천·양주·연천 지역 농가들도 똑같이 지난 21일 HPAI가 추가 발생하여 고통속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옛날 1997년 IMF 교훈 삼아 이번 사태도 우리들이 “공동의식” 지혜를 발휘하면 HPAI 발생, 폭설, 사료값 인상 등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채란인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채란인 소속인 생산자 단체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처해야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즉 국내 채란인이 공동 조직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한다면 우리 산업을 지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HPAI 발생 후속 조치를 하면서도 모든 양계농가들이 통감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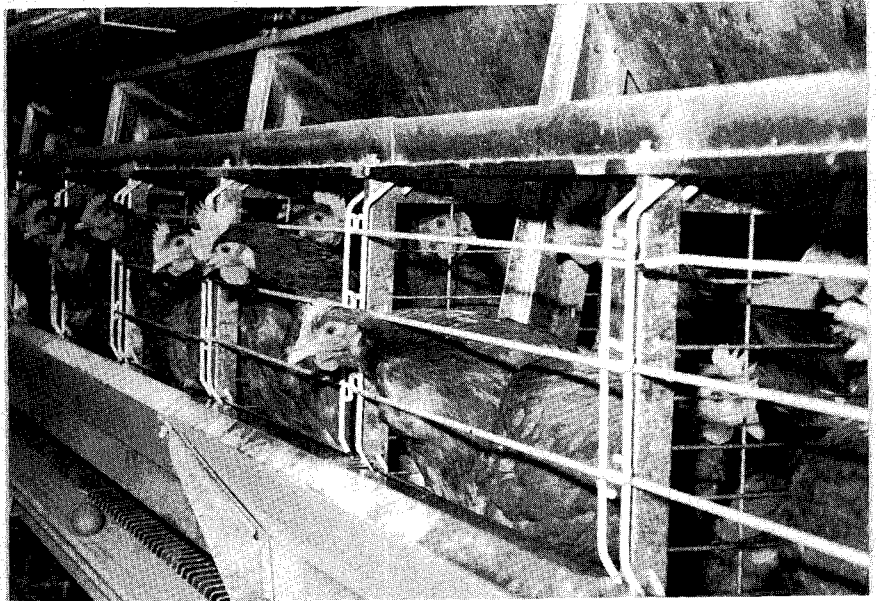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소속한 동두천·양주·연천지부는 관할 지역의 모든 양계 농가가 회원으로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농장 닭 마리수를 일주일에 1회 지부에 통보

*둘째- 농장 계란 채고를 일주일에 1회 지부에 통보

*셋째- 3개월 입추계획 지부에 통보

*넷째- 매월 공동방역단 운영 및 매주수요일 자체 소독 상황 보고



간단한 네 가지 정보를 잘 취합하여 지부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동두천·양주·연천지부가 이런 정보를 서울 본회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력은 금방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두천·양주·연천지부는 정보과 악이 되면 바로 본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본회에서는 동두천·양주·연천지부의 닭수수와 계란 채고, 병아리 입식 계획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노계, 종계 관리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매월 공동 방역단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농장 소독을 농장간 독려하여 질병 발생으로 차후부터는 고통받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실행하기까지 양계인간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고, 정보를 숨기려는 소극적 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부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양계업자가 열린 마음으로 회원간 정보 공유 의지가 있다면 컴퓨터, 핸드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지부 운영 경제 부담도 회원들의 종이 난좌 공동사용, 노계 공동 출하, 자동차 보험공동가입, 사료 공동 사용, 소독약 공동 조달 등등 회원간 공동의 경제사업을 하면 회원에게는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과 같이 HPAI와 같은 질병에서 채란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국의 채란인이 모두 대한양계협회에 가입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였다.

우리 채란인의 비협조로 또다시 질병과 수급불균형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이웃 농가와 함께 올바른 관리 정보 공유를 실천해 보자. **양계**